

생활양식과 전통적 가치관, 사회의식에 대한 서귀포 시민의식의 실태와 과제*

- 서귀포·제주·서울 시민의식 비교연구 -

손 명 철**

목 차

- I. 문명사적 대전환과 서귀포시 위상
- II. 생활양식과 전통적 가치관에 대한 시민의식 비교·분석
- III. 사회의식에 대한 시민의식 비교·분석
- IV. 서귀포 시민의식의 과제와 전망

I. 문명사적 대전환과 서귀포시 위상

우리는 지금 21세기에 진입해 살고 있다. 21세기가 가지는 시대적 의미나 예측 가능한 변화양태에 대해서는 다양한 담론들이 회자되고 있지만, 그중 대표적인 것으로 '아시아·태평양시대'를 꼽을 수 있을 것이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아시아·태평양시대란 아시아·태평양 지역이 세계문명의 중심지로 부상한다는 것이다. 인류 역사 이래 처음 1천년 동안 세계문명의 중심지가 지중해 연안이었다면, 지난 1천년간 세계문명의 중심축은 대서양 연안국가들을 중심으로 구축되어 왔다. 그러나 이제 새로운 밀레니엄을 맞아 문명의 중심지는 다시 아시아·태평양 지역으로 이동하고 있다는 진단이다.

한반도는 지경학적 입지(geo-economic location)상 아시아·태평양벨트의 중심에 위치하고 있다. 세계지도를 거꾸로 놓고 보면 제주도는 우리나라가 동남아와 유럽으로 진출하는 항로의 첨단 교두보가 된다. 이제 더 이상 한반도는 아시아 대륙의 동쪽 끝에 붙어 있는 작은 반도국이 아니며, 제주도 역시 한반도 변방에 있는 고립된 섬에 머물지 않는다. 한편 정보·통신 기술의 비약적 발전은 산업화 시대에 고착된 국가간 혹은

* 본 논문은 서귀포신문 창간 기념 심포지엄에서 발표된 글을 수정·보완한 것임.

** 제주대학교 사회교육과 지리전공 부교수

은 지역간 중심-주변(Core-Periphery)의 관계를 근본적으로 해체할 개연성을 열어주고 있다. 한반도, 특히 제주도가 동북아의 거점도시로 도약할 수 있는 기회가 다가오고 있는 것이다. 서귀포 역시 제주의 또 다른 변방에서 벗어나 주체적인 도시성장의 기반을 구축할 계기를 맞고 있다.

아시아·태평양 시대로 예견되는 21세기가 도래했다고 해서, 그리고 국가간, 지역간의 지배-종속구조를 변화시킬 탈산업화, 정보화 시대에 진입했다고 해서 한반도와 제주도, 서귀포의 위상이 저절로 바뀌는 것은 아니다. 단위지역 주체들이 어떻게 준비하고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현재 진행중인 문명사적, 세기적 변화는 위기일 수도 있고 호기가 될 수도 있을 것이다.

이제 다가오는 아시아·태평양 시대에 주체적이고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먼저 시대적 변화의 의미를 올바르게 이해하고, 서귀포시민의 의식 속에 나타나는 부정적인 측면과 긍정적인 측면을 준별하여 새로운 세기가 요구하는 방향으로 의식을 전환해야 할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다. 이는 새천년을 맞이한 현시점에서 지역사회가 대학과 시민단체에 요구하는 절박한 시대적 요청이기도 하다.

본 연구는 21세기 아시아·태평양 시대에 대비하여 서귀포 시민의 의식을 다양한 측면에서 심층분석하고자 한다. 그리고 분석결과를 우리나라 수도이며 최대도시인 서울, 제주도의 중심지인 제주 시민들의 의식세계와 비교·분석함으로써 서귀포 시민의 의식세계의 특성을 부각시키고 의식개혁의 과제를 제시하고자 한다. 또한 각 표에는 직접 언급되어 있지 않지만, 선행 연구들을 이용하여 동경과 북경의 사례와도 간략하게 비교함으로써 서귀포시 뿐만 아니라 전반적으로 우리나라 국민들의 의식적 특성을 이해하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한다.

연구방법은 설문조사와 문헌연구를 중심으로 하였다. 설문조사는 한국방송공사와 연세대학교가 공동으로 조사·발표한 <한국 중국 일본 국민의식조사 백서>(1996)와 제주대학교 탐라문화연구소의 <21세기 아시아·태평양 시대 제주시민 의식의 실태와 과제>(1997)를 참조하였다. 여기서 사용된 설문지를 수정·보완하여 서귀포 시민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를 이미 조사·연구된 서울, 제주 시민의식과 비교·분석하였다.

설문조사 내용은 크게 세 영역으로 구분되는데, 이미 연구된 서울 및 제주시와의 비교를 위하여 서귀포 시민들의 생활양식과 전통적 가치관, 그리고 사회의식과 관련된 내용으로 구성하였다.

구체적인 설문조사 방법은 다음과 같다. 우선 행정구역상 서귀포시 지역내에 거주하는 만20세 이상 성인 남·녀 500명(표본오차 ± 4.38 , 신뢰수준 95%)을 대상으로 하였다. 이들을 12개 행정동별 인구크기에 비례한 확률추출법(PPS: Probability Proportionate

to Size Sampling)에 따라 추출한 다음, 면접원이 표준화된 설문지를 가지고 직접 가구를 방문하여 일대일로 조사하였다. 면접원은 서귀포시와 서귀포신문사의 협조로 본 조사 목적에 맞는 적격자 10명을 선발·교육한 후 이들을 활용하였는데, 1999년 1월 13-22일까지 10일간에 걸쳐 조사하였다.

II. 생활양식과 전통적 가치관에 대한 시민의식 비교·분석

설문 10개 문항중 의식주를 중심으로한 구체적인 생활양식은 모두 7개 문항을 통하여 살펴보았다. 이들 문항은 의생활 관련 문항 2개(문항 1~2), 식생활 관련 문항 2개(문항 3~4), 주생활 관련 문항 1개(문항 5)를 포함하여 이웃공동체의 크기(문항 6)와 가족결속력의 정도(문항 7)와 관련된 문항 각 1개씩으로 구성되어 있다. 전통적 가치관에 대해서는 모두 3개 문항을 통해 조사하였다. 본 장에서는 각 문항별 조사결과를 문항 순서에 따라 도시별로 비교·분석하고자 한다.

〈표 1〉 전통의상 이용빈도 (문항 1)

단위: %

	0회	1-2회	3-4회	5-9회	월1회	주1회	거의매일	계
제주	57.0	31.0	9.6	2.1	0.2	0	0.2	100
서울	50.2	34.8	9.3	3.4	1.6	0.6	0.1	100
서귀포	56.0	31.0	4.6	4.0	3.0	1.0	0.4	100

지난 '1년간 전통의상을 입어본 빈도'를 묻는 질문에 서귀포 시민의 56.0%, 제주 57.0%, 서울 50.2%가 '한번도 입지 않았다'고 응답하였고, '한두번 정도 입었다'는 응답은 서귀포와 제주 31.0%, 서울 34.8%로 나타났다. 이는 서귀포를 포함하여 제주와 서울 등 우리나라에서 공통적으로 전통적인 의생활 양식이 거의 사라져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3개 도시 모두 공통적으로 연령이 높을수록 그리고 학력이 낮을수록 전통의상을 입는 빈도가 높게 나타난다. 이러한 조사결과는 현재 우리나라가 경험하고 있는 사회·문화변동의 단계, 그리고 그것의 폭과 깊이를 반영하는 것이라 볼 수 있다. 우리나라는 지난 한 세대 동안 급격하게 진행되어온 사회·문화변동과정 속에서 세대간 의식과 생활양식의 격차가 크게 벌어져 있음을 보여준다.

전통의상을 입는 빈도를 우리나라와 이웃한 동경 및 북경 시민들과 비교해보면, 우리나라 사람들은 일본이나 중국 사람들보다 상대적으로 전통의상을 자주 입는 것을 알 수 있다. 지난 1년간 전통의상을 한번도 입지 않은 사람의 비율이 동경은 71.6%, 북경은 81.6%로 서울보다 무려 20~30%나 높게 나타나기 때문이다. 일본이 우리보다 전통의상을 입는 빈도가 낮은 것은 서구문물을 받아들여 근대화를 시작한 기간이 우리보다 길고 더 많이 진전되어 있다는 측면에서, 그리고 중국의 경우는 사회주의 정권이 수립되면서 전통적인 가치규범에서 벗어나려는 시도와 관련이 깊은 것으로 해석된다.

〈표 2〉 최신패션 눈치보기 (문항 2)

단위: %

	매우 의식	의식하는 편	의식하지 않는 편	전혀 의식 없음	계
제주	9.6	58.5	21.2	10.7	100
서울	5.6	56.0	29.0	9.4	100
서귀포	3.2	45.6	29.8	10.0	88.6

주: 서귀포의 경우 '모르겠다'는 응답이 11.4%임

'최신 유행하는 의상을 입을 때 남의 시선을 의식하느냐'는 질문에 '매우 의식'하거나 '의식하는 편'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서귀포 48.8%, 제주 68.1%, 서울 61.6%로 우리나라 국민들이 대체로 보수적인 의생활 의식을 지니고 있는 가운데 서귀포시민들이 남의 시선을 의식하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낮음을 알 수 있다.

3개 도시 응답자의 연령별, 학력별 응답률을 살펴보면 의생활 의식면에서 의미있는 차이를 발견할 수 있다. 서울의 경우에는 연령별, 학력별로 의생활 의식에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고 있으나, 제주와 서귀포는 매우 뚜렷한 차이를 나타낸다. 일반적인 예상과는 달리 연령이 낮을수록, 그리고 학력이 높을수록 의생활에서 남의 시선을 크게 의식하는 것으로 나타나 더욱 보수적인 성향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보수적 성향은 서귀포보다 제주시민들에게서 보다 강하게 나타난다.

이러한 응답결과는 응답자들이 의생활에서 남의 시선을 의식한다고 할 때 그 의식대상은 동년배가 아니라 자기보다 연령이 많은 어른들을 의식하는 것으로 받아들인 것이며, 상대적으로 익명성이 높고 개인주의가 발달한 서울의 젊은층들은 나이 많은 사람들의 시선을 별로 의식하지 않는데 비하여, 제주와 서귀포의 젊은층들은 어른들의 시선을 의식하여 의생활에서 심리적인 제약을 많이 받고 있음을 보여준다.

북경은 서울이나 동경보다 의생활 면에서 남의 눈치를 보지 않고 상대적으로 개방적이고 자유분방한 의식을 가지고 있는 경향이 두드러진다. '의식하지 않는 편'이거나 '전

혀 의식하지 않는다'는 답변이 서울 38.4%, 동경 55.2%에 비해 북경은 66.4%로 나타나기 때문이다. 이것 역시 유교주의 전통에서 벗어나려는 사회주의 국가 국민들의 성향을 반영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표 3〉 아침식사 메뉴 (문항 3)

단위: %

	안먹었음	우유/야채/빵	밥/죽/국	국수/만두	계
제주	26.1	12.3	61.2	0.4	100
서울	15.5	9.3	73.8	1.4	100
서귀포	17.0	6.4	75.8	0.8	100

'오늘 아침 식사 메뉴'를 묻는 질문에 '밥/죽/국'을 먹었다는 응답이 서귀포 75.8%, 제주 61.2%, 서울 73.8%로 나타나 식생활면에서 우리나라는 여전히 전통적인 패턴이 많이 남아 있음을 보여준다. 특히 서귀포의 경우에 이러한 경향이 약간 더 두드러짐을 알 수 있다. 제주가 서울이나 서귀포 보다 이 항목에서 낮은 비율을 보이는 반면, '안먹었음'에 상대적으로 높은 비율을 나타내는 것은 제주가 다른 지역보다 전체 표본 중 20대의 비율이 높게 표집된 데에 기인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20대는 다른 연령층보다 아침식사를 안하는 비율이 특히 높게 나타나고 있다(37.1%).

3개 도시 모두 연령이 낮을수록, 그리고 학력이 높을수록 '아무것도 먹지 않은' 비율이 높게 나타나며, '우유/야채/빵' 등 서구식 식생활을 즐기는 비율이 높아진다.

동경과 북경은 모두 '우유/야채/빵'을 먹는 비율이 여타 항목보다 가장 높게 나타난다.

〈표 4〉 손님 접대음료 (문항 4)

단위: %

	차	커피	쥬스	청량음료	술	계
제주	22.5	56.1	12.9	4.8	3.7	100
서울	15.9	46.3	26.3	8.2	3.3	100
서귀포	12.0	76.4	4.4	5.0	2.2	100

'평소 손님에게 주로 접대하는 음료'를 묻는 질문에 서귀포(76.4%), 제주(56.1%), 서울(46.3%) 3개 도시 모두 다수의 시민이 '커피'를 접대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는 우리나라가 일본이나 중국 등 여타 동아시아 국가들에 비하여 전반적으로 음료문화가 가장 서구화되어 있다는 점과 함께, 오랜 세월동안 국민들의 일상생활 속에 정착된 전

통적인 음료문화가 잘 발달되어 있지 못함을 보여주는 것이라 하겠다. 서귀포의 경우 특히 커피를 접대하는 비율이 높게 나타나는 것은 앞서와 같은 해석 외에 설문조사 시점¹⁾의 영향이 개입된 것으로 볼 수도 있다. 즉 서귀포의 경우는 겨울인 1월에 설문 조사를 실시함으로써 겨울철에 즐겨마시는 커피에 대한 응답이 특히 높게 나온 것으로 보인다.

3개 도시 모두 남성보다 여성이 커피를 더욱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동경과 북경은 '차'를 대접한다는 응답이 각각 68.7%, 73.6%로 우리나라보다 음료문화면에서 전통성을 많이 유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5〉 살고 싶은 주택양식 (문항 5)

단위: %

	전통가옥	서구식 단독주택	고급아파트	계
제주	33.7	53.4	12.9	100
서울	22.8	56.8	20.4	100
서귀포	30.8	62.4	6.8	100

'가장 선호하는 주택양식'을 묻는 질문에 서귀포(62.4%)를 비롯하여 제주(53.4%)와 서울(56.8%) 시민 다수가 '서구식 단독주택'을 꼽고 있다. 주생활면에서의 서구지향적 의식이 두드러짐을 알 수 있는데, 이는 서구식 주택이 주는 쾌적성과 편리성이 크게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서귀포의 경우 특히 서구식 주택에 대한 선호도가 높게 나타나는 반면 고급아파트에 대한 선호도는 상대적으로 가장 낮게 나타난다. 이는 서귀포의 경우 주변에서 고급아파트를 쉽게 접할 수 있는 기회가 많지 않은데서 생기는 심리적인 거리감, 혹은 익숙치 않음이 하나의 요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3개 도시 모두 남성보다는 여성이, 그리고 연령이 낮을수록 전통가옥보다 서구식 주택이나 고급아파트를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한편 동경은 전통가옥(66.3%)을, 북경은 '서구식 단독주택(43.4%)에 대한 선호가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북경의 경우 서울이나 동경 시민보다 전통가옥(31.6%)과 서구식 단독주택, 그리고 고급아파트(25.0%)에 대해 비교적 고른 선호도를 보여주고 있다.

'아주 친하게 지내는 이웃집의 수'를 묻는 질문에 3개 도시 모두 '2-3집'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가장 높으며, 평균에서도 의미있는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 서귀포의 경우

1) 서귀포는 겨울(1999년 1월 13-22일), 제주는 봄(1997년 5월 26-28일), 그리고 서울은 여름(1996년 7월 3-9일)에 각각 설문조사가 이루어졌다.

'한집도 없다'는 응답이 21.6%나 되는 것은 이웃과의 유대관계를 크게 필요로 하지 않는 20대들의 응답이 크게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표 6〉 친근한 이웃집 수 (문항 6)

단위: %

	0집	1집	2-3집	4-5집	6-9집	10집이상	계	평균
제주	0.0	11.8	56.6	18.3	2.4	7.5	96.6	3.3
서울	4.3	15.7	42.0	14.1	3.2	5.1	84.4	3.2
서귀포	21.6	12.8	34.8	16.2	5.6	9.0	100	3.2

주: 제주와 서울의 경우 무응답이 각각 3.4%, 15.6%임

연령이 높을수록, 그리고 학력이 낮을수록 친근하게 지내는 이웃의 수가 많게 나타나 공동체의 결속력이 공고함을 보여준다.

동경의 경우 친하게 지내는 이웃이 한집도 없다는 응답이 34.8%로 가장 높게 나타나며 평균도 1.4집으로 가장 낮은 수치를 보인다. 북경은 이들 응답이 각각 22.5%와 2.5집으로 서울에 비하여 이들 두 도시의 시민들이 보다 개인주의 성향이 강함을 알 수 있다.

〈표 7〉 가족과 함께한 저녁식사 횟수 (문항 7)

단위: %

	0회	1회	2회	3회	4회	5회	6회	7회	계	평균
제주	0.0	24.8	19.7	16.0	10.9	15.2	1.9	11.5	100	3.2
서울	16.4	17.6	18.3	11.5	7.2	8.0	4.9	16.1	100	3.0
서귀포	20.4	16.4	13.2	11.4	6	11.4	2.8	18.4	100	3.0

'지난 일주일간 가족 모두가 모여 저녁식사한 횟수'를 묻는 질문에 일주일 내내 가족모두가 함께 저녁식사를 한 경우가 서귀포 18.4%, 제주 11.5%, 서울 16.1%로 나타나 서귀포가 상대적으로 가장 견고한 가족 공동체의 결속력을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동시에 일주일 내내 한 번도 가족 모두가 함께 저녁식사를 하지 않은 비율(20.4%)도 가장 높게 나타나 주목을 끌고 있다. 평균적으로는 제주시가 가장 높은 빈도를 보여준다.

연령이 낮을수록, 학력이 높을수록 한 번도 가족 모두가 함께 저녁식사를 하지 않았다는 응답율이 높게 나타난다.

지난 일주일간 가족 모두가 모여 저녁식사를 한 횟수가 동경은 평균 3.5회, 북경은

5.2회로 우리나라보다 전반적으로 높게 나타난다. 이는 우리나라의 경우 특히 가장들이 직장동료나 연고가 있는 사람들과 어울려 저녁식사를 하는 빈도가 높은 사회적 현실을 반영하는 것이라 해석된다.

〈표 8〉 노후에 함께 살고 싶은 자녀 (문항 8)

단위: %

	장남	아들중 누구	딸	자녀와 따로	계
제주	10.9	15.7	3.6	69.8	100
서울	10.8	10.3	3.2	75.7	100
서귀포	16.0	15.2	1.4	66.4	99

주: 서귀포의 경우 '아무나'라고 응답한 비율이 1.0%임

'노후에 누구와 함께 살기를 원하는가'라는 질문에 3개 도시 모두 '자녀와 따로' 살겠다는 응답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이는 우리나라 국민들이 전반적으로 노후에도 자녀에게 의존하지 않고 독립적인 생활을 하고 싶다는 강렬한 의지를 나타낸 것이라 해석된다.

서귀포의 경우 제주나 서울에 비해 '장남'과 함께 살고 싶다는 응답이 가장 높은 반면 '딸'과 함께 살고 싶다는 응답은 가장 낮게 나타난다. 이는 서귀포 시민들이 제주나 서울 시민들에 비해 아들 특히 장남에 대한 선호도가 상대적으로 높은 반면 딸은 출가 외인이라는 전통적인 자식에 대한 성별 역할 관념이 강하게 남아 있는 것으로 보인다.

3개 도시 모두 남성보다 여성이, 연령이 낮을수록, 그리고 학력이 높을수록 '자녀와 따로' 살겠다는 비율이 높게 나타난다.

한편 동경과 북경의 경우에는 '장남'이나 '아들중 아무나'하고 살겠다는 응답보다 '딸'과 함께 살겠다는 응답이 각각 16.6%, 18.6%로 우리나라보다 훨씬 높게 나타나고 있어 자식에 대한 성별 역할 인식이 상대적으로 자유로움을 알 수 있다.

'내세존재' '윤회사상' '풍수지리' '조상음덕' '점성술' 등 우리나라의 전통적인 사상에 대하여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냐는 질문에 3개 도시 모두 '점성술'을 제외한 나머지 항목에 대하여 '전적으로 믿는다'거나 '믿는 편'에 다수가 응답하고 있다. 특히 '조상의 음덕'과 '풍수지리'에 높은 신뢰감을 나타낸다. 제주시민들이 모든 항목에 가장 높은 신뢰감을 보이는 반면, 서울시민들은 상대적으로 낮은 신뢰감을 보여준다.

이들 응답결과를 살펴볼 때, 우리나라 국민들은 대체로 전통사상에 대하여 긍정적인 생각을 많이 가지고 있으며, 특히 '조상의 음덕', 그리고 이와 밀접한 관련을 가지는 '풍수지리'에 대하여 높은 신뢰감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아 유교와 민간신앙이 국민

의 의식저변에 뿌리 깊게 남아 있음을 알 수 있다. 서귀포의 경우에는 전반적으로 제주보다는 약하지만 서울보다는 전통사상에 대해 매우 강한 집착력을 나타낸다.

〈표 9〉 전통사상에 대한 생각 (문항 9)

단위: %

		전적으로믿음	믿는편	믿지않는편	전혀안믿음	아는바없음	계
1) 내세존재	제주	14.3	44.3	26.7	10.1	4.6	100
	서울	18.5	37.8	26.1	12.7	4.9	100
	서귀포	11.2	37.6	34.2	10.2	6.8	100
2) 윤희사상	제주	6.7	44.6	28.7	14.0	6.1	100
	서울	4.2	35.4	34.3	22.4	3.7	100
	서귀포	5.4	38.0	34.8	14.6	7.2	100
3) 풍수지리	제주	9.2	56.6	22.6	8.6	2.9	100
	서울	3.7	55.0	22.4	16.1	2.8	100
	서귀포	6.0	53.8	26.4	8.0	5.8	100
4) 조상음덕	제주	11.5	57.3	20.3	8.6	2.3	100
	서울	6.1	50.2	26.0	16.2	1.5	100
	서귀포	9.4	56.4	22.0	8.8	3.4	100
5) 접성술	제주	2.5	34.2	32.1	20.3	10.9	100
	서울	1.8	27.3	33.2	33.0	4.7	100
	서귀포	3.2	26.4	38.0	22.6	9.8	100

전반적으로 동경과 북경 시민들은 우리나라 사람들보다 전통사상에 대한 신뢰가 약한 편이며, 특히 북경의 경우가 가장 낮은 신뢰도를 보여주고 있다. 그런데 예외적으로 동경의 경우 조상의 음덕을 믿는다는 응답이 58.2%로 나타나 조상에 대한 뿌리 깊은 숭배의식을 보여주고 있다.

‘조상산소에 성묘’ ‘장남이 부모모심’ ‘아내는 남편에 복종’ ‘부모반대 결혼은 안함’ ‘연장자 의견 따라야’ ‘대 잇기 위해 아들 필요’ ‘남자는 바깥일 여자는 집안일’ 등 우리의 전통적 가치관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3개 도시민 모두 ‘당연하지 않은 편’이거나 ‘전혀 당연하지 않다’는 응답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으나 ‘조상산소 성묘’에만 예외적으로 ‘당연하다’는 응답이 서귀포 94.8%, 제주 95.7%, 서울 91.1%로 절대다수를 점하고 있다. 이는 다른 전통적 가치관들은 모두 변해도 조상숭배를 근간으로 하는 유교적 가치관만은 여전히 굳게 온존하고 있음을 여실히 보여준다.

서귀포의 경우 ‘장남이 부모를 보셔야 한다’에 49.0%, ‘아내는 남편에 복종해야 한다’에 37.0%, ‘대 잇기 위해 아들은 반드시 필요하다’에 42.4%가 ‘당연하다’고 응답해 제주

와 서울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높은 비율을 보이고 있는데, 이를 통해 서귀포 시민들에게 보다 보수적이고 전통적인 가치관이 많이 남아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10〉 전통적인 가치관에 대한 생각 (문항 10)

단위: %

		매우당연	당연한편	당연하지 않은편	전혀당연안함	계
1) 산소성묘	제 주	59.2	36.5	3.8	0.6	100
	서 울	46.8	44.3	6.4	2.5	100
	서귀포	61.0	33.8	4.0	1.2	100
2) 장남 부모모심	제 주	10.9	32.6	46.1	10.4	100
	서 울	11.5	34.6	45.7	8.2	100
	서귀포	13.4	35.6	45.2	5.8	100
3) 아내 남편복종	제 주	7.9	22.8	37.4	31.9	100
	서 울	7.9	28.6	46.5	17.0	100
	서귀포	8.2	28.8	44.0	19.0	100
4) 부모 반대결혼 안함	제 주	6.5	22.2	53.6	17.8	100
	서 울	5.7	35.0	51.2	8.1	100
	서귀포	3.8	28.2	55.2	12.8	100
5) 연장자 의견 따름	제 주	5.8	33.2	48.0	12.9	100
	서 울	4.0	32.6	54.5	8.9	100
	서귀포	4.0	34.6	53.8	7.6	100
6) 대잇기 위해 아들 필요	제 주	10.7	27.2	37.7	24.5	100
	서 울	9.7	23.0	44.1	23.2	100
	서귀포	13.0	29.4	44.0	13.6	100
7) 남자 직장 여자 가사	제 주	5.9	19.1	40.7	34.4	100
	서 울	4.9	19.7	51.2	24.2	100
	서귀포	7.4	13.6	53.2	25.8	100

동경은 산소성묘가 '매우 당연하다'는 응답이 60.2%로 비교 대상 지역중 가장 높은 응답율을 보인 반면, 남자는 직장, 여자는 가사를 맡아야 한다는 고정적인 성역할 분담에 대해서는 '매우 당연하다'와 '당연한 편'이라는 응답이 2.6%에 불과해 전통적인 성별 역할분담 관념에 강한 거부반응을 보이고 있다. 북경의 경우에는 연장자의 의견을 따르는 것이 '매우 당연하다'와 '당연한 편'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72.6%로 비교 대상 지역중 가장 높은 수치를 보이는 반면, 대를 잇기 위해 아들이 필요하다 항목에는 17.9%만이 '매우 당연하다'거나 '당연한 편'이라고 응답해 가장 낮은 수치를 나타내고 있다.

Ⅲ. 사회의식에 대한 시민의식 비교·분석

서귀포 시민들의 구체적인 사회의식의 모습은 모두 10개 문항을 통하여 살펴보았다. 이들 문항은 국가와 개인 이익간의 우선순위, 통일, 빈부격차, 연고주의, 환경보존, 그리고 외국 상품에 대한 반응과 관련된 문항들(문항 11~16)과, 그 밖에 직업, 일과 여가, 그리고 가업과 관련된 문항들(문항 17~20)로 구성되어 있다. 여기서는 이들 각 문항별 조사결과를 문항 순서에 따라 도시별로 비교·분석하고자 한다.

〈표 11〉 국가이익 우선 (문항 11)

단위: %

	매우 찬성	찬성하는편	보통	반대하는편	매우 반대	계
제주	13.5	38.3	36.3	10.4	1.5	100
서울	16.5	49.1	23.9	9.5	1.0	100
서귀포	8.4	44.8	37.4	7.8	1.6	100

‘자신의 이익보다 국가를 먼저 생각해야 한다’는 의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매우 찬성’하거나 ‘찬성하는 편’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서귀포 53.2%, 제주 51.8%, 서울 65.6%로 전체적으로 과반수 이상의 시민들이 자신의 이익보다는 국가를 먼저 생각해야 한다는 의견에 공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서 한가지 주목되는 것은 일반적인 예상과는 달리 서울 시민들보다 제주와 서귀포 시민들의 찬성 비율이 매우 낮게 나타난다는 점이다. 이는 오랜 기간동안 제주도민들이 국가(혹은 중앙권력, 행정관청)로부터 받은 혜택보다는 이들로부터 당한 수탈과 피해가 훨씬 컸던 역사적 경험에서 기인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서귀포의 경우 종교를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들(찬성 비율 44.2%)보다 종교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찬성 비율이 높은 편인데, 천주교 75.9%, 개신교 62.9%, 그리고 불교도는 53.9%가 찬성하고 있다.

한편 동경의 경우에는 찬성 비율이 13.2%에 불과한 반면, 북경은 78.1%가 찬성쪽에 응답해 커다란 대조를 보인다.

‘언제 한반도가 통일될 것이라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서귀포시민의 다수인 27.4%와 서울시민의 40.6%는 ‘10년 이상’, 제주시민의 32.8%는 ‘5-10년 미만’이라고 응답하여 대체로 향후 10년이 한반도 통일의 중요한 기점이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가까운

〈표 12〉 한반도 통일전망 (문항 12)

단위: %

	3년미만	3-5년미만	5-10년미만	10년 이상	통일불가능	계
제주	5.4	13.2	32.8	31.2	17.4	100
서울	1.7	10.2	29.1	40.6	18.4	100
서귀포	0.8	5.2	17.2	27.4	16.6	67.2

주: 서귀포의 경우 '모르겠다'는 응답이 32.8%임

시일내, 즉 '5년 미만'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제주(18.6%)나 서울(11.9%)에 비하여 서귀포(6.0%)가 특히 낮게 나타나고 있는 점과 유독 서귀포에서만 '모르겠다'는 응답이 32.8%나 되는 것은 3개 도시에서의 설문조사 시점이 서로 다른 데에서 그 원인의 일단을 찾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다시 말하면 제주와 서울은 우리나라가 외환위기를 맞기 이전, 즉 경제에 대한 낙관적 전망이 팽배하던 시기에 조사된 반면, 서귀포는 IMF관리체제 아래 대다수 국민들이 경제적 고통을 받고 있는 시점에 설문조사가 이루어져 암울한 사회·경제적 상황이 조속한 통일에 대한 기대와 열망을 많이 약화시키고 더 나아가 통일 자체에 대한 관심까지 희석시킨 것으로 보인다.

남성보다는 여성이, 연령이 높을수록, 학력이 낮을수록 '모르겠다'는 응답율이 높게 나타난다.

동경과 북경 시민들은 한반도 통일에 대하여 '10년 이상' 걸리거나 '불가능하다'는 응답이 각각 65.0%, 62.7%로 대체로 한반도 통일에 대하여 회의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우리 사회에서 빈부의 격차가 생기는 원인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3개 도시 모두 다수의 시민들이 '사회구조 및 제도의 문제'라고 응답하고 있다. 우리 국민의 2/3이상이 한 개인이 잘살고 못사는 것은 본인의 능력이나 노력 여하 때문이 아니라 사회구조와 제도 때문이라고 믿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응답결과는 우리 사회에 만연되어 있는 가진자, 힘 있는 자에 대한 불신뿐만 아니라, 공정한 경쟁체제를 구축하고 사회적 약자를 보호해야할 책무를 지고 있는 국가에 대한 불신에까지 연결된다는 점에서 근본적인 개선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더욱이 연령이 낮을수록(20대 82.1%), 학력이 높을수록(대학이상 76.6%) 빈부격차의 원인이 '사회구조와 제도' 때문이라고 믿는 비율이 높게 나타난다는 점에서 문제의 심각성은 더욱 크다고 하겠다.

빈부의 격차가 생기는 원인에 대하여 동경의 경우는 '본인의 능력과 노력'이라고 응답한 비율(30.6%)이 여타 비교 대상 지역들보다 높게 나타나며, 북경은 '기타'에 대한

응답(13.9%)이 여타 지역보다 높게 나타난다.

〈표 13〉 빈부의 격차가 생기는 원인 (문항 13)

단위: %

	본인의 능력과 노력	사회구조 및 제도	기타	계
제주	27.9	66.3	5.8	100
서울	27.2	68.6	4.2	100
서귀포	27.6	68.2	1.0	100

주: 서귀포의 경우 '본인의 능력'과 '사회구조' 둘다라고 응답한 비율이 3.2%임.

〈표 14〉 학연, 혈연, 지연의 중요성 (문항 14)

단위: 점수, 1≤점수≤4

	학 연	혈 연	지 연
제주	3.4	3.5	3.0
서울	3.3	3.4	3.1
서귀포	3.2	3.3	3.0

* 여기서 척도값은 최소 1(전혀 영향없음)부터 최대 4(매우 영향많음)의 값을 가지며 연속변수이고 중앙값은 2.5이다.

'우리 사회에서 성공하는데 학연, 혈연, 지연이 얼마나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3개 도시의 시민 모두 이들 연고주의가 강하게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응답하고 있다. 그 중에서도 특히 혈연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는데, 제주시의 경우 여타 도시 모든 항목중 혈연의 중요성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난다. 서귀포 시민들 역시 우리 사회에서 성공하는데 혈연이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친다고 응답하고 있으나, 제주와 서울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연고주의의 영향력을 낮게 평가하고 있어 주목된다.

동경과 북경의 경우는 전반적으로 우리나라보다 연고주의의 중요성을 낮게 평가하고 있는데, 동경의 경우는 학연(3.1), 북경의 경우는 혈연(3.2)의 중요성을 상대적으로 높게 평가하고 있다.

'환경보존을 위해 세금을 인상한다면 어떻게 하겠는가'라는 질문에 '수용하겠다'는 응답이 서귀포 70.4%, 제주 70.6%, 서울 66.5%로 나타나 3개 도시 모두 다수의 시민들이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세금인상에 대하여 서울 시민들보다 서귀포와 제주 시민들이 좀더 관대한 태도를 보이고 있는데, 이는 '자신의 이익보다 국가를 먼저 생각

〈표 15〉 환경보존을 위한 세금인상 (문항 15)

단위: %

		적극적수용	수용하는편	수용않는편	전혀수용않는편	계
세금 인상	제 주	11.6	59.0	22.9	6.4	100
	서 울	10.8	55.7	26.9	6.6	100
	서귀포	11.2	59.2	19.4	10.2	100

해야하느냐'는 〈문항 11〉의 응답결과와 비교해 볼 때 흥미있는 차이점을 발견할 수 있다. 〈문항 11〉에서 서울 시민들은 서귀포와 제주 시민들 보다 훨씬 높은 비율로 '자신의 이익보다 국가를 먼저 생각해야 한다'는 의견에 찬성하면서도, 세금인상에는 그 반대의 반응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이는 추상적인 당위, 혹은 이념의 세계에서는 자신의 이익보다 국가를 먼저 생각해야 한다고 느끼면서도 구체적인 실천의 수준, 그것도 자신의 가처분 소득과 직접 관련되는 사안에서는 한발 뒤로 물러서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3개 도시 시민들이 세금문제에 얼마나 더 민감하게 반응하는가, 그리고 상대적으로 자본주의 생리에 얼마나 더 익숙해져 있는가를 반증하는 것이라 해석된다.

동경의 경우 환경보존을 위해 세금을 인상할 때 이를 수용하겠다는 응답이 40.5%, 수용하지 않겠다는 응답이 56.4%로 다수가 수용하지 않겠다는 반응을 보이는 반면, 북경의 경우에는 수용하겠다는 응답이 81.3%로 대다수 시민들이 수용의사를 밝혀 대조를 보인다.

〈표 16〉 외국 상품에 대한 저항감 (문항 16)

단위: %

	아주 심함	약간 느낌	별로 안느낌	전혀 안느낌	계
제 주	11.4	59.9	23.7	5.0	100
서 울	14.5	54.5	24.8	6.1	100
서귀포	16.6	47.8	30.2	4.2	98.8

주: 서귀포의 경우 '사용않음'에 응답한 비율이 1.2%임

'외국 상품을 구입하거나 사용할 때 저항감을 느끼느냐'는 질문에 '저항감을 느낀다'고 응답한 비율이 서귀포 64.4%, 제주 71.3%, 서울 69.0%로 3개 도시 모두 다수의 시민들이 외국 상품에 대하여 저항감을 가지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는 지금까지 우리의 교육이 외국 상품의 구입이나 사용에 대하여 일방적으로 부정적인 인상만을 심어준데 크게 기인하는 것으로 보인다. 국가간에 시장이 개방되고, 우리도 보다 값싸고 질

좋은 상품을 생산하여 세계 시장에서 외국 상품과 당당히 경쟁하여야 할 세계화 시대에, 그리고 점차 소비자 주권이 강조되고 있는 상황에서 국산품 애용만을 부르짖는 것은 재고의 여지가 있다고 하겠다. 이런 점에서 '외국 상품에 대하여 저항감을 느끼는' 비율이 서귀포가 제주나 서울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나는 것은 긍정적으로 해석될 수도 있을 것이다.

3개 도시 모두 연령이 낮을수록, 학력이 높을수록 외국 상품에 대한 저항감을 덜 느끼는 것으로 나타난다.

동경과 북경 시민들은 외국 상품에 대하여 저항감을 느끼지 않는다는 응답이 각각 80.8%, 86.3%로 나타나, 우리나라 국민들보다 훨씬 외국상품에 대하여 개방적인 의식을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17〉 현재의 직업만족도 (문항 17)

단위: %

	대단히 만족	다소 만족	별로 만족 않음	전혀 만족 않음	계
제주	11.6	52.2	30.4	5.8	100
서울	9.7	54.1	31.9	4.3	100
서귀포	18.1	55.5	22.8	3.6	100

주: '직업없음'에 응답한 비율이 서귀포 32.6%, 제주 30.1%, 서울 35.1%임.

'현재 자신의 직업에 대한 만족도'를 묻는 질문에 '만족한다'는 응답이 서귀포 73.6%, 제주와 서울 63.8%로 3개 도시 시민들 다수가 현재 자신의 직업에 만족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서귀포의 경우 자신의 직업에 대한 만족도가 특히 높게 나타나는데, 이는 두가지 측면에서 해석이 가능한 것으로 보인다. 첫째, 서귀포는 서울과 같은 대도시에 비하여 직장 내에서 구성원 간에 발생하는 경쟁 혹은 갈등관계가 치열하지 않고 보다 가족적인 분위기를 유지할 수 있다는 점, 둘째는 서귀포 시민의 경우 현재보다 더 나은 직업이나 직장을 탐색하고 그곳으로 진출하려 도전하기 보다는 아주 불만족스럽지 않은 한 현재 직업에 안주하려는 성향이 서울 시민들 보다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날 수 있다는 점이 그것이다.

동경의 경우는 여타 비교 대상 지역들보다 '대단히 만족'(22.4%)하는 비율과 '전혀 만족하지 않음'(10.1%)에 응답한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는 반면, 북경의 경우에는 '다소 만족'에 응답한 비율이 특별히 높게 나타난다.

〈표 18〉 이상적인 직업 (문항 18)

단위: %

	제 주		서 울		서 귀 포	
1	교 수	37.1	사업가	39.9	공무원	40.0
2	공무원	34.7	공무원	30.2	사업가	37.6
3	사업가	30.2	교 수	27.7	교 수	24.6
4	문화예술인	22.3	과학기술자	19.9	과학기술자	15.6
5	의 사	17.6	문화예술인	18.4	의 사	15.4
6	변호사	15.8	언론인	16.4	문화예술인	15.2
7	과학자기술자	14.8	의 사	14.8	언론인	10.2
8	언론인	13.9	변호사	14.7	체육인	6.6
9	연예인	7.6	체육인	7.7	변호사	6.4
10	체육인	6.0	연예인	7.6	연예인	5.8
합계%	200		197.3		177.4	

* 이 문항은 응답자가 이상적이라고 생각하는 직업 2가지씩을 선택하도록 설계되었다. 따라서 합계가 200%가 되는데, 서귀포의 경우 제시된 항목외에 '전문직'과 '농업'에 각각 3.4%, '기타'에 1.8%, 그리고 '없다'고 응답한 비율이 14.0%임.

'어떤 직업을 가장 이상적이라고 생각하는지'를 묻는 질문에 서귀포는 '공무원', 제주는 '교수', 서울은 '사업가'를 꼽고 있다. 3개 도시 시민들 모두 순위에 차이는 있으나 '공무원' '교수' '사업가'를 이상적인 직업 1, 2, 3위로 선정하고 있는 공통점을 보여준다. 서귀포와 제주 시민들이 비교적 안정적인 직업이라고 할 수 있는 '공무원'과 '교수'를 가장 이상적인 직업으로 생각하고 있는 반면, 서울 시민들은 '사업가'를 가장 이상적인 직업으로 응답하고 있는 것은 산업화가 크게 진전된 대도시와 그렇지 못한 중소도시 시민들의 직업의식을 반영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서귀포의 경우 '공무원'을 가장 이상적인 직업으로 선택한 것은 IMF라고 하는 현실 상황이 적지 않게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동경은 '사업가' '공무원' '문화예술인'을, 북경은 '사업가' '과학기술자' '의사'를 이상적인 직업 1, 2, 3위로 꼽고 있는데, 특히 사회주의 체제를 유지하고 있는 북경 시민들이 사업가를 1순위로 꼽고 있는 점이 이채롭다.

'일과 여가의 관계'를 묻는 질문에 3개 도시 모두 시민의 다수는 '일한 만큼 여가를 가져야 한다'고 응답해 일과 여가의 가치를 동등하게 인정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동시에 '일보다는 여가가 우선이다'고 응답한 비율은 아주 소수에 불과해 우리나라

〈표 19〉 일과 여가의 관계 (문항 19)

단위: %

	여가보다 일	일한만큼 여가	일보다는 여가	계
제 주	23.0	73.7	3.3	100
서 울	25.4	72.1	2.5	100
서귀포	28.4	69.4	2.2	100

라는 아직도 여가보다는 일의 중요성을 크게 강조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특히 서귀포의 경우 다른 도시에 비하여 '여가보다 일이 우선이다'는 응답이 상대적으로 높은 비율을 나타내고 있다.

연령이 낮을수록, 학력이 높을수록 '일한만큼 여가를 가져야 한다'고 응답한 비율이 높은 반면 '여가보다 일이 우선'이라는 응답율은 감소하고 있다. 젊은층일수록 상대적으로 일보다 여가의 중요성을 더 높이 평가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동경은 '여가보다 일'이 중요하다고 응답한 비율이 12.4%에 불과한 반면, 북경은 63.2%에 달해 여가와 일에 대한 의식이 양국간에 매우 대조적임을 알 수 있다.

〈표 20〉 가업전수 (문항 20)

단위: %

	물려준다	원하지 않으면 포기	물려주지 않겠다	계
제 주	6.5	86.0	7.5	100
서 울	14.8	77.5	7.7	100
서귀포	12.4	81.4	6.2	100

'자신의 가업을 자녀에게 물려줄 것인가'를 묻는 질문에 3개 도시 모두 '자녀가 원하지 않으면 물려주지 않겠다'는 응답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제주 시민들이 서귀포와 서울 시민들 보다 상대적으로 가업전수에 있어서 자녀의 의사를 더 존중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연령이 낮을수록, 학력이 높을수록 가업전수에 있어서 자녀의 의견을 더욱 많이 배려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동경은 '물려준다'는 응답이 6.8%에 불과한 반면, 북경은 38.7%에 달해 가업전수에 있어서 이들 도시민들의 의식이 확연하게 다르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IV. 서귀포 시민의식의 과제와 전망

극동의 조그만 반도국 한국, 한반도 말단의 부속도서 제주도, 그리고 한라산 남쪽 외곽에 위치한 소도시 서귀포는 지금까지 3중의 지배굴레 속에서 생존을 이어왔다. 국제정치 역학상 한국은 세계의 주변부였고, 제주는 한반도의 변방이었으며, 제주시에서 바라볼 때 서귀포는 다시 한라산 넘어 남쪽 끝에 있는 작은 마을에 불과하다는 인식이 보편적이었다. 서귀포는 언제까지 세겹 질곡속에서 자신의 운명을 수동적으로 받아들여야만 할 것인가.

이제 21세기, 새로운 밀레니엄이 시작되었다. 21세기는 문명사적으로 두가지 커다란 의미를 함축하고 있다. 탈산업화·정보화 시대와 아시아·태평양 시대가 그것이다. 이들은 모두 지난 수천년간 고착되어온 지배-종속의 구조와 관행에 일대 변혁을 가져올 수 있는 개연성을 열어주고 있다. 서귀포 역시 지난날 자신을 억압하던 구조를 탈바꿈시켜 주체적으로 자신의 운명을 개척해 나갈 호기를 맞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시대적 변화는 사전에 철저히 준비하고 창조적으로 대응하는 자에게만 호기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이 글은 서귀포가 새로운 세기에 주체적이고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준비 작업의 일환으로 우선 시민의식의 실태를 생활양식과 전통적 가치관, 그리고 사회의식에 초점을 맞추어 조사·분석하였다. 분석결과 부정적 혹은 개선해야할 측면과 긍정적 혹은 강화해야할 측면들이 다음과 같이 도출되었다.

먼저 개선해야할 측면은 두가지로 요약되는데, 가부장적 권위주의와 유교 중심의 전통적 가치관의 온존이 그것이다. 가부장적 권위주의는 의생활에서의 눈치보기와 자녀의 성별역할에 대한 고정관념을 통해 확인할 수 있었다. 서귀포의 젊은층들이 다른 도시에 비하여 새로 유행하는 옷을 입을 때 주위 어른들의 눈치를 특히 심하게 의식한다고 하는 것은 단순히 의생활에서의 제약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아이디어와 사고, 참신한 시각, 개성적인 자기연출, 미지의 세계에 대한 도전 등 젊은층에게서 기대할 수 있는 활력과 미덕 전반에 대한 제약으로 작용할 수도 있다는 점에서 시급히 개선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지식기반 사회에서는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경쟁력의 핵심을 이룬다는 점에서 더욱 그러하다. 조상의 음덕이나 풍수지리 등 전통사상에 대한 집착과 유교적 가치관도 개선이 요구되는 측면이라 하겠다. 특히 반드시 장남이 부모를 모셔야 한다거나, 아내는 남편에 복종해야한다. 그리고 대를 잇기 위해 아들이 꼭 필요하다고 하는 의식이 다른 도시에 비하여 서귀포 시민들에게 강하게 남아 있다는 사실도 의식개혁을 주도하는 행정관청이나 시민단체들이 유념해야 할 부분으로 여겨진다.

그러나 서귀포 시민들의 의식 속에는 도시 발전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그래서 더욱 강화되어야 할 측면도 많이 있다. 사회생활에서 연고주의의 영향을 상대적으로 낮게 평가한다거나, 환경보존을 위해 세금인상을 기꺼이 받아들일겠다는 높은 납세의식, 외국 상품에 대한 저항감이 낮은데서 보여주는 높은 소비자 주권의식, 그리고 여가보다는 일을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높은 근로의식 등은 더욱 권장되고 강화되어 도시 발전의 밑거름으로 삼아야 할 것이다. 미래는 예측하는 것이 아니라 창조하는 것이다.

참고 문헌

- 김항원, 1998, 제주도 주민의 정체성, 제주대학교 출판부.
송성대, 2001, 문화의 원류와 그 이해, 도서출판 각.
신행철·김진영, 1985, 제주인의 의식구조, 제주대학교 사회발전연구소.
아주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1995, 수원 시민의 의식과 생활실태에 관한 설문조사.
제주대학교 탐라문화연구소, 1997, 21세기 아시아·태평양시대 제주시민 의식의 실태와 과제 -제주·서울·동경·북경 시민의식 비교연구.
한국방송공사·연세대학교, 1996, 한국·중국·일본 국민의식조사백서.
로널드 잉글하트, 1995, "한국 세대간 가치관차 세계 최고," 조선일보, 1995년 6월 11일자.